



# 시코쿠 순례의 발자취



## 일본 유산 '시코쿠 순례' ~ 유람형 순례길과 독자의 순례 문화 ~

고호 대사 구카이 연고의 후다쇼를 도는 시코쿠 순례는 아와, 도사, 이요, 사누키의 시코쿠를 회장 1400km에 달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장대한 유람형 순례길로, 후다쇼 순례가 1200년을 넘게 계승되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시코쿠의 험한 산길이나 긴 돌계단, 한가로운 전원지대, 파도가 잔잔한 해변이나 먼 육지 끝을 '순례자들' 이 왕래하는 풍경은 시코쿠의 풍물시가 되어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의 '왕복형' 성지 순례와 달리 국적이나 종교·종파를 초월해 모두가 순례자가 되어, 지역 주민의 따뜻한 '접대'를 받으며 공양과 수행을 위해, 구원과 치유를 위해 고호 대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시코쿠 순례는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의 여행'으로 세계에 유례없는 순례 문화이다.

문화청 일본 유산 매력 발신 추진사업 / 발행 : 시코쿠 순례 일본 유산 협의회

일본 유산이란 \_\_\_\_\_ 지역의 역사적 매력과 특색을 통해 일본의 문화와 전통을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일본 유산 (Japan Heritage)'으로 문화청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토리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 넘치는 유형 무형의 다양한 문화재 군을 지역이 주체가 되어 통합적으로 정비 활용하여 국내외에 전략적으로 발신해 지역의 활성화에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력: 나루토 교육대학 부학장 오이시 마사아키/ 도쿠시마 대학 준교수 David Moreton

시코쿠 순례는 고호대사 구카이의 연고가 있는 88 개소의 후다쇼를 도는 순례를 말합니다. '후다쇼'는 순례자들이 본존과 고호대사 구카이에게 순례 표(후다)를 봉헌하는 것에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순례길은 시코쿠 4개 현 약 1,400 km로 종파와 연령을 불문하고 순례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천 년 이상 키워온 '시코쿠 순례 풍경'을 소개하고, 그 기원과 일본을 대표하는 순례로 발전하게 된 과정, 시코쿠 순례의 원점인 고호 대사 구카이에 대한 신앙과 그 구제의 모습에 초점을 두어 역사를 풀어보겠습니다.



# 고호대사 구카이란?

## 구카이 전설

고호 대사 구카이에 얽힌 전설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총 3,000 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물에 대한 전설이 그 절반 약 1,500 회를 차지합니다. 시코쿠의 구카이 전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① 후다쇼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 ② 다른 지역에 비해 이야기 줄거리의 종류가 많다.
- ③ 구카이의 영험을 다룬 것이 많고, 신앙의 대상이 되어있다.
- ④ 다른 지방에는 구카이 이외의 전설도 많지만, 시코쿠에서는 대부분 구카이에 관한 것으로, 현재에도 순례자가 주인공이 되어 순례의 기적을 많이 남기고 있다.

인용 : 타케다 아키라 '순례의 민족' 1969

### 젠츠지 존영당

소재 가가와현 젠츠지시



구카이가 태어난 사에키가의 택지에 지어져, 안채에는 구카이 자각으로 전해지는 본존 '메히키다이시 상' 이 비장 되어 있다. 지하에는 약 100미터의 '계단 돌기'가 있어, 어둠 속에서 '호고'를 외우며 구카이의 연을 잇는 도장이다.

### 구와즈이모 전설

소재 제 24번 후다쇼  
호츠미사기 지노보리구치  
고치현 무로토시 무로토미사키초



무로토미사키 주변에 자생하는 토란 종류의 '구와즈이모' 구카이 전설. '시코쿠 순례 공덕기' 겐로쿠 2년 (1689)에는 '도슈무로토에 구와즈이모가 있었다. 어느 날 지나가던 대사가 '좀 먹게 해 달라'고 간청했는데 거절하자 바로 못먹는 식물이 되었다'고 실려있다. 고치현의 아시즈리미사키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다.

### 샘물 전설 (미즈노미 대사)

소재 도쿠시마현 가츠우라군  
가츠우라초



'시코쿠 순례 공덕기' '겐로쿠 2년 (1689)에는 두 개의 샘물 전설이 있다. 하나는 '버드나무 물' 전설로 한 순례자가 산에서 목이 말라 이곳에서 쓰러졌다. 지나가던 구카이가 버들가지로 주문을 외우자 샘물이 솟았다. 바닥에 둔 버들가지는 버드나무가 되어 뿌리에서 물이 솟아 오랫동안 순례자들이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도쿠시마 현에는 13곳의 청수 전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사적 아와헨로미치의 가쿠린지미치에 남아있는 '미즈노미 대사'이다.

### 상코시이키(판본)

에도시대 (간에이 1624-1645)  
소재 제 6번 후다쇼 안라쿠지



엔랴쿠 16년 (797), 구카이 24세의 작품으로 3권으로 되어있다. 유교와 도교, 불교에서 불교의 우위성을 말한 것으로, 젊은 구카이의 행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수행지로 오쿠니오타키다케와 도슈무로토자키가 등장한다.

### 하시다테 전설

나미키리부동촌 영지의 도묘스기  
소재 도쿠시마 가이부군 가이요초



부동촌이 늘어진 경내 안쪽에 2그루의 큰 삼나무가 있으며, 그 가장 안쪽 부분에 나미키리 부동촌이 모여져 있다. 삼나무는 구카이가 산에서 떨어질 것 같은 큰 바위를 보고, 앞쪽에 2개의 삼나무 젓가락을 세워 두었는데, 후에 썩이나 거목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고호대사상(젠츠지 존영)  
소재 가가와 현립박물관

고호 대사 구카이 (774~835) 는 사누키노구니 타도군 보부가우라에서 호족 사에키우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 세에 상경해 관리의 길을 걷다, 18세에 한 승려와의 만남으로 불자의 길을 택해 시코쿠에서 수행했습니다. 그 경위는 24세에 지은 저서 '상코시이키'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당나라로 건너가 장안의 청룡사 혜과에서 밀교를 익히고 편조금강의 법호를 하사받았습니다. 귀국 후 진언종을 창시하고 사후에는 조정에서 그 위업을 칭송하여 고호 대사 호를 주었습니다.





# 시코쿠 순례의 시조

## 에몬사부로 전설

시코쿠 순례의 기원으로 "에몬사부로 전설"을 들 수 있습니다. 에몬사부로는 시코쿠 순례의 선조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요국의 부호로 욕심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탁발하는 승려의 바루를 대빛자루로 쳐서 8조각으로 깨진 후 8명의 자식들이 한 명씩 죽게 되자 그 스님이 구카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에몬사부로는 용서를 빌기 위해 순례에 나서 21번째 순례 길, 제12번 후다쇼 쇼산지 목전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거기에 나타난 구카이에게 에몬사부로는 "이요국 국수 고노 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대사는 이를 받아들여 '에몬사부로 재림' 이라고 쓴 돌을 쥐어주고 장을 치렀습니다.

그후, 고노 가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왼손에는 '에몬사부로 재림'이라고 쓴 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고호 대사 유래 에도시대 가에이 7년 (1854)  
소장 가가와현 개인소장



'셋교가루카야'의 '타카노 권'과 같은 계통의 고보 대사전. 구카이가 창건한 88곳, 이요 에몬사부루에 관한 시코쿠 순례의 전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겐로쿠 원년 (1688), 도사 이치노미야에서 만들어진 것의 사본이다.

### 조신암 에몬사부로 영적

소재 도쿠시마현 묘자이군 가미야마초



에몬사부루가 구카이를 만나기 위해 21번째로 돌아 마지막으로 쓰러진 곳. 죽은 에몬사부루의 삼나무 지팡이를 묘비에 찢러두자 삼나무 거목이 되었다는 것에서 조신암으로 불린다.

### 이시테지

소재 에히메현 마츠야마시 이시테



이시테지는 이요 태수 고노 가문의 기원 사찰로, 이전에는 양요지라 불렸다. 에몬사부로 재림 무대의 하나이다. 전설에는 고노 오키토시에게 태어난 아이가 왼손을 퍼지 않으려 해 양요지의 승려가 기도를 하자, 손에서 '에몬사부로 재림' 이라고 쓰인 작은 돌이 나왔다. 오키토시는 그 돌을 양요지에 봉헌하고 절 이름도 이시테지(石手寺)로 바꾸었다. 전설의 돌이 이시테지에 현재도 전해진다. 시코쿠 순례의 성립에 관한 '에몬사부로 전설' 이 실린, 초견 자료로는 가장 오래된 자료도 소장되어 있다.

## 처음으로 시코쿠 순례를 한 구미인

시카고 대학 인류학 교수 프레드릭 스탈 (1868~1933)은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시코쿠 순례 길에 오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 학술 연구단의 일원으로, 아이누 연구를 목적으로 1904년 (메이지 37년)에 첫 방일 이후 15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민중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1917년에 첫 순례를 시작하여 그때에는 전 여정의 절반 정도를 돌았다. 그 후 1921년에 다시 순례를 이어 시코쿠 88개소 모든 영지를 완성했다.

그는 순례 방문지마다 환영을 받은 것에 매우 감명을 받아, 시코쿠 순례 여정은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경험 중 하나였다고 후에 기록하고 있다. 가가와 현의 고토히라구에서는 'Courtesy (예의)와 Hospitality (환대)' 라는 메시지를 써 순례 중에 만난 일본인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수행의 땅

고호 대사 구카이의 탄생, 수행의 땅 시코쿠는 일본 각지에서 성인 등 승려가 수행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헤이안 시대 후기 고시라카와인선 '료진히쇼' 와 '곤자쿠모노가타리슈' 에는 시코쿠 해변을 고행하며 수행에 정진하는 성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에는 수행의 땅 '시코쿠 헤치' 가 형성되었습니다. 수도에서 떨어졌다는 의미로 '헤치(벽지)' 로 불렸으며 순례(遍路)라는 표기가 일반화된 것은 에도 시대 이후입니다. 승려 수행으로 시코쿠 헤치가 시코쿠 순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이류지 샹싱가타케

소재 제21번 후다쇼 다이류지 도쿠시마현 아난시 가모초

고호 대사 구카이가 24세에 지은 '상고시이키' 에는 '아와국 다이류가 다케에 오르고 도슈의 무로토자키에서 근엄하다' 로 기록되어 있듯이, 아와국 다이류다케(제 21번 후다쇼 다이류지)와 도사국 모로토자키에서 수행한 것이 적혀있다. 사진은 제21번 후다쇼 다이류지 '남쪽 샹싱가타케' 로 동쪽으로 나온 절벽 바위 위에 '구몬지수행 대사 상' 이 오른쪽으로 앉아있다.

### 개정 곤자쿠모노가타리(와초부)

에도 시대 교호 5년 (1720) 소장 도쿠시마 현립 박물관



12세기의 불교 설화집 '곤자쿠모노가타리집' 을 그림을 넣어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사람이 말이 되었다는 '위진이마어' 의 설화에는 '승려 셋이 시코쿠를 돌다' 로 기록되어 있다. 원래는 '모노가타리집' 제 31의 14의 이야기로 '옛날, 불도수행을 하던 승려 3인이 이요, 사누키, 아와, 도사의 해변 등 시코쿠 벽지를 돌았다' 로 성인들의 시코쿠 해안의 수행을 기록했다. 시코쿠 순례의 원조이다.

### 간조가 폭포

소재 도쿠시마현 가츠우라군 가미가츠초



제20번 후다쇼 가쿠린지의 오쿠노인 '지겐지' 앞에 간조가 폭포가 있다. 간조는 영험수를 머리로 받는다는 뜻으로, 수행(水行)을 뜻한다. 고호 대사 구카이가 이곳에서 수행한 데서 명명되었다. 폭포는 70m에 일명 '아사히노타키' 라고 불리며 맑은 날에는 오색 무지개가 나타나 그 안에 부동명왕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의 내영' 이라고 한다.

간에이 15년 (1638)의 '구쇼훗신노시코쿠레이조고준고키'에는 '오쿠노인 안쪽의 폭포가 낮에는 반대로 안개를 뿜어 부동명왕의 존영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 이와야지

(제45번 후다쇼) 소재 에히메현 가미우케나군 구마코겐초



가마쿠라 시대, 잇펜쇼님이 수행한 것은 '잇펜쇼님허지리예'에도 보인다. 해발 700m의 산간의 큰 바위, 석굴에 내장된 당우로 된 산악 사원으로, 옛부터 영산으로 여겨진 수행 장소였다. 구카이가 방문한 것은 고닌 6년 (815)로 여겨지며, 이미 도사국 여성이 동굴에 칩거하며 수행을 하여 법화선인이라고 칭하고 있었다. 법화선인은 구카이에 귀의하여 산 전체를 현상했다고 한다. 암봉에는 선인당을 비롯해 많은 수행 장이 남아 있었다.

## 사이교 법사의 여행

헤이안 시대 말기 시인 사이교 법사 (1118~1190)는, 속명 사토 노리키요로 도바 상황을 섬기는 무사였습니다. 23세에 출가하여 승려로 무츠 등 각지를 돌다 고야산에 암자를 마련했습니다. 호겐의 난 (1156년)에서 동생 고시라카와 천황에게 패해 우배지 사누키에서 승하한 스토쿠 상황의 묘에서 진혼했습니다. 그 후 구카이 탄생지에 세워진 겐츠지 (제75번 후다쇼)에서 참배하고 그를 향한 신앙심으로 근처에 암자를 짓고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 사이교암

소재 가가와현 겐츠지시 요시하라마치



겐츠지 시내에는 사이교가 머물렀던 암자가 돌이 있어, 겐츠지의 승방 교쿠센인과 제 72번 후다쇼 만다라사원과 제73번 후다쇼 숯사카지를 잇는 중간 정도에 있다. 만다라사원 근처에 있는 사이교암은 사누키평야와 세토나이카이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미즈쿠니노오카' 에 있는 작은 암자이다. 사이교는 진안 3년 (1168) 51세 때, 사누키에서 승하한 스토쿠 상황을 참배하고 구카이 탄생지를 찾기 위해 사누키를 여행했다.





# 시코쿠 순례의 발전

에도 시대에는 수행 승려 외에도 신앙, 관광유람 등 다양한 목적의 일반인들이 시코쿠 순례 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의 오사카는 순례자를 위한 소형 여행안내 책자 '시코쿠 주변 도로안내'를 비롯해 후다쇼 사원의 유서와 경내 모습을 담은 '시코쿠 순례 영장기'와 영험담을 정리한 '시코쿠 순례 공덕기' 등이 잇따라 출간되고 시코쿠행 선박의 준비를 위한 상점도 나타났습니다. 민중화가 진행되어, 승려 중심의 '시코쿠헤치'에서 일반인들도 순회하는 '시코쿠 순례'로 변화했습니다.

민중 순례로 변화해, 시코쿠 벽지를 수행하는 승려에게 회사하는 전통이 접대로 계승되어, 접대 문화가 시코쿠 순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순례자에는 중병 환자들과 곤궁한 사람들도 있어, 삶의 마지막 장으로 순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도쿠시마번에서는 번내에 8곳의 절 (조코쿠지, 즈이운지, 후쿠쇼지, 초젠지, 세이쇼쿠지, 바이코쿠지, 우치코시지, 앤도지)을 역참이 있는 절 '에키로지'로 지정, 순례자 등 통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감시도 하였습니다. 구카이의 영험담이 퍼져, 순례를 위한 이정표와 조문을 위한 순례묘, 공양탑 등이 지어져, 시코쿠 순례는 구카이 신앙에 의한 구원의 길로 발전했습니다.

## 에키로지 문서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  
게이초 3년 (1598)  
소장 6번 후다쇼 안라쿠지



하치스카에서 즈이운지 (현재 6번 후다쇼 안라쿠지)를 에키로지로 지정했을 때 발급한 문서. 에키로지 제도는 번주의 조상 하치스카 이에마사가 진언종 사원 8곳을 에키로지로 지정, 순례자에게 숙박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수상한 사람들을 감시하게도 하였다.

## 시코쿠 순례 영장기

에도 시대 호레키 2년 (1752)  
소장 6번 후다쇼 안라쿠지



초판은 겐로쿠 2년 (1689)에 신넨의 정보와 고야산 승려 고타쿠의 협력으로 고야산 승려 자쿠훈이 지은 것으로 전 7권이다. 88곳의 후다쇼 사원 및 김빠라공권 영장 등의 기원과 경내도가 실려 있다.

## 시코쿠 영험기응기 에도 시대 분세이 8년 (1825) 소장 시코쿠 대학 부속 도서관



시코쿠 순례의 영험담을 모은 것. 저자는 만자이로 소데히코라는 하카타의 인물이다. 각 후다쇼에 편지로 영험담에 대해 질문했지만, 답변이 적어 시코쿠로 건너가 취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카타, 교토, 오사카에서 출판되었다.

## 시코쿠 순례도 에도 시대

소장 도쿠시마현립 박물관



서쪽을 위로하여 88개소와 그에 달하는 코스가 그려져 있으며 후다쇼 사이의 거리와 명소 등이 적혀있다. 시라토리 다이묘진과 김빠라, 이시즈키산이 크게 그려져 있고 중앙에는 고보 대사 상이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로 시코쿠 순례의 기원이 적혀있다

## 신넨 이정표 에도 시대

소재 도쿠시마현 이타노군 가미이타초



신넨의 발원으로 지어진 순례 이정표의 하나.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가미이타초 히키노의 순례 길을 따라 세워져 있다. 신넨은 시코쿠에 200개의 표석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36기가 확인되었다. 오른쪽에는 '(범어) 나무다이시헨조공고', 정면 '왼쪽 순례길 기원자 신넨, (좌측면) 시주 아슈 사이타무라 오카다 헤이자부로' 라고 음각되어있다.





에도 시대 후기에 이르러 순례자 수가 증가하고 추선, 기원을 목적으로 하는 순례뿐만 아니라 기근과 질병 등으로 고향을 등지게 되어 순례자가 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순례자가 방문지에서 쓰러지면 마을 사람들은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간단한 오두막을 만들고, 먹을 것과 진료를 하고 약을 주는 등의 선을 행했습니다. 순례자가 병사하면 마을 묘지에 매장하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양육과 고향에 연락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고토가 문서 (나루토 교육 대학 부속 도서관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쿠젠국 (현 후쿠오카현)의 부자 순례자가 도쿠시마성 주변까지 와 부친이 '경련'으로 쓰러져 마을 사람들이 조처를 했음에도 2주 후에 병사한다. 남겨진 아이를 마을에서 양육했지만, 2개월 반 만에 흉역으로 병사한다.' 이렇게 마을이 쓰러진 순례자 치료를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 시코쿠 순례 과거장

에도 시대 소장 제 5번 후다쇼 지조지



에도 시대 제5번 후다쇼 지조지에 묻힌 시코쿠 순례자의 과거 장부. 각지에서 찾아와 죽음에 이른 순례자를 위한 조처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숨진 인근 절에서 장사를 지내고 법령도 부여하였다.

## 모시야게다테마츠루오보에 후지쿠라케 문서

에도시대 덴포 5년 (1834) 소장 도쿠시마현립 도서관



도쿠시마번 내에서 순례자가 순례 중 쓰러진 경우, 마을은 그 순례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보호 기간이 10일이 지난 경우는 번이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이타노군 아와타무라 (현 나루토시)가 번에 제출한 수당 청구를 위한 보고서이다.

## 순례 무덤군 (쇼산지미치)

소재 도쿠시마현 모자이군 가미야마초



제12번 후다쇼 쇼산지로 향하는 순례길에 접한 경사면에 있는 순례자 무덤이다. 확인된 무덤 11기는 대부분 분카, 분세이 시대 (1804~1830) 것으로, 비문으로 본 가장 먼 곳의 순례자는 분세이 11년 (1828)의 고슈 (아마나시 현) 야츠시로군 야마가무라 출신이다.

## 접대

순례 문화의 특징 중 하나로 접대가 있습니다. 접대의 역사는 시코쿠 근처에서 수행하던 탁발승에게 사람들이 희사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세에는 중병이나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영험을 찾아 순례하는 사람도 많아, 쓰러진 순례자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고 죽음에 이르면 법령과 함께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을 접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까지 마을의 고승이 직접 접대를 하고, 현대는 개인과 다양한 그룹이 접대를 함으로 전통문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접대는 개인과 지역 그룹 외에도 와카야마의 기슈 고승, 아리타 고승처럼 다른 지역에서 집단으로 가서 접대 공간을 설치 운영하며 접대하는 풍습도 있습니다. 접대에는 차와 과자 등 음식이 주류이지만, 과거에는 숙박과 세발 마사지 등의 접대도 있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접대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순례자들도 매료되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쿠린지 츠야 터

메이지~쇼와  
소재 도쿠시마현 가츠우라군 가츠우라초



가쿠린지가 지은 순례자를 위한 무료 숙박 시설. 가쿠린지 길 오경석 뒤의 완만한 경사면에 초상을 치르는 츠야도의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건물터가 연석으로 정연하게 짜여져 그 위에 작은 건물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내부에는 화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주변에는 우물, 변소가 있었다. 쇼와 31년 (1956) 발행된 '시코쿠 순례 이와나미 사진 문고 176'에는 츠야도의 사진이 남아있다.

## 접대강 (석등롱) 에도 시대 분세이 12년 (1829)

소재 23번 후다쇼 야쿠오지 도쿠시마현 카이후군 미나미초



접대강은 시코쿠 순례의 독자적 풍습이다. 23번 후다쇼 에서 행해지는 기슈 접대강은 200년 이전에 시코쿠로 가는 길에 좌초한 와카야마 어선을 도운 히와사의 사냥꾼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시작은 에도시대 후기 니오몬사와키에 있던 암자에서 접대를 한 것으로 여겨지며 후에 기슈 접대소를 세웠다. 앞의 한 쌍의 석등은 '기슈 접대강'이 기진한 것으로, 많은 참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지금도 매년 봄에 접대소에서 접대가 행해진다.





# 순례 여행 준비

## 후다쇼 참배 순서

### 1. 산문 (인왕문)에서 합장하고 일례

산문 (인왕문)에서 인사를 하고 경내에 들어간다.



### 2. 손 씻는 곳에서 손을 씻고 입을 행궁

손 씻는 곳에서 몸을 정화한다. 입을 행구는 것은 몸의 안팎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이다.



### 3. 종루 타종을 한다.

참배 후에 타종하는 것은 '모도리가네(돌아가는중)'로 타종하지 않는 관습이 있다.



### 4. 본당 (금당)에서 헌등, 헌향을 하고 오사메후다(종이패)를 헌납, 예배하고 불경 (독경, 사경 등)을 봉납한다.

사경은 영지 (후다쇼) 또는 보다이지의 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사메후다는 오사메후다함에 사경은 사경함에 납부한다. 사경 등불 비용은 새전과 함께 각 당의 새전함에 봉납한다.



### 5. 대사당에서, 본당 (금당)과 같은 순서를 밟는다.

대사당은 고보 대사 구카이가 본존이 되므로 추장근행 순서 '본존 진안'은 생략한다.



### 6. 납경소에서 납경장 등에 납경 (고슈인:납인)을 받는다

납경 (고슈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7. 산문 (인왕문)에서 합장하고 일례

## 순례 모습

**가사**  
참배는 법의인 가사를 착용한다. 목에 거는 가사를 착용하고 참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게가사**  
**하쿠에**  
순례길에 이를 착용하는 것은, 성스러운 세계를 전진하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고 지팡이**  
예로부터 여행의 걸음을 도와주는 공고즈에는 고보 대사 구카이의 상징으로, 여행의 경신적 지주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다리 위에서는 지팡이를 짚지 않는 관습이 있다.

**뎃코**  
**염주**  
**레이**

**이타바사미**  
오사메후다를 넣어두는 상자이다. 주머니나 판자모양을 한 것도 있다.

**즈타부쿠로**  
수행 중에 사용하는 주머니. 산야 주머니라고도 한다. 납경장이나 교본 등 참배에 필요한 물건을 넣는다.

**오사메후다**  
순례 수행의 증표로, 본당과 대사당의 오사메후다함에 납부한다. 순례 도중 접대를 받으면 답례로 오사메후다를 건네고 순례 횡수에 따라 후다의 색상을 바꾸는 관습도 있다.

**납경장**  
불경을 바친 표시로 받는 납경 (고슈인)을 위한 장부. 두 번째 이후는 '가사네시루시' 라고 하며 같은 납경장에 보인 (고슈인)을 받는다. 예로부터 예배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지카타비**  
**각반**  
**기타**  
○ 우비 ○ 차양 (모자 등)  
○ 물병 ○ 헤드 라이트, 반사재 등

여기에 표시된 순례와 참배 절차는 일례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작법이나 계명이 있으며, 순례의 목적과 사고방식에는 개인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해 참배하고 상식과 감사의 마음으로 순례하는 것입니다.

(참조 : 시코쿠 88 영지회)



# 시코쿠 순례MAP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 에서 가가와 액세스

**비행기**

- 하네다공항 약1시간20분
- 나리타공항 약1시간30분

**다카마츠공항**

**고속버스**

- 도쿄역 약10시간10분
- 오사카역 약3시간40분
- 간사이국제공항 약3시간50분
- 하카타역 약10시간

**신칸센·JR**

- 도쿄역 약3시간20분
- 신오사카역 약50분
- 하카타역 약1시간45분

**다카마츠역**

**배**

- 고베항 약4시간30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 에서 도쿠시마로 액세스

**비행기**

- 하네다공항 약1시간20분
- 후쿠오카공항 약1시간

**도쿠시마아와오도리공항**

**고속버스**

- 도쿄역 약9시간30분
- 오사카역 약2시간30분
- 간사이국제공항 약3시간

**신칸센·JR**

- 도쿄역 약3시간20분
- 신오사카역 약50분
- 하카타역 약1시간45분

**다카마츠역**

**배**

- 아리아케항 약18시간
- 기타규슈 신오지항 약15시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 에서 에히메 액세스

**비행기**

- 하네다공항 약1시간30분
- 나리타공항 약1시간40분

**마츠야마공항**

**고속버스**

- 도쿄역 약12시간20분
- 오사카역 약5시간30분~7시간30분
- 하카타역 약9시간45분

**신칸센·JR**

- 도쿄역 약3시간20분
- 신오사카역 약50분
- 하카타역 약1시간45분

**마츠야마역**

**배**

- 오사카난코 약8시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 에서 고치로 액세스

**비행기**

- 하네다공항 약1시간20분
- 이타미공항 약40분
- 후쿠오카공항 약1시간

**고치료마공항**

**고속버스**

- 도쿄역 약11시간~12시간40분
- 오사카역 약4시간50분
- 하카타역 약1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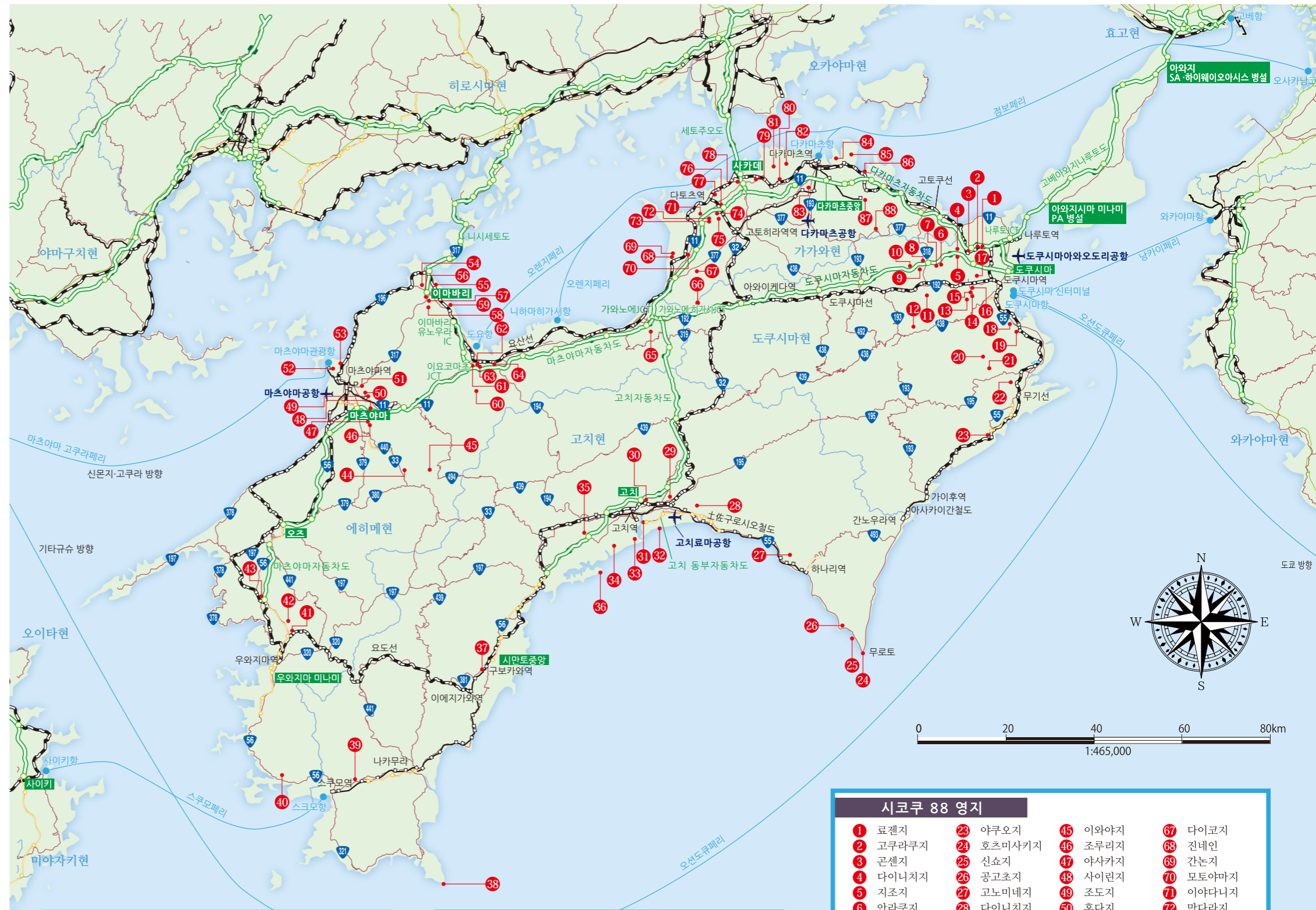
**신칸센·JR**

- 도쿄역 약3시간20분
- 신오사카역 약50분
- 하카타역 약1시간45분

**고치역**

**배**

- 사이키항 약3시간10분



시코쿠 88 영지			
1 료겐지	23 야쿠오지	45 이와지	67 다이코지
2 고쿠라쿠지	24 호츠미사키지	46 조류리	68 진넨
3 곤센지	25 신소지	47 야사가지	69 간논지
4 다이니치지	26 콩고초지	48 사이린지	70 모토야마지
5 지조지	27 고노미네지	49 조도지	71 이야다니지
6 안라쿠지	28 다이니치지	50 혼다지	72 만다라지
7 주라쿠지	29 고쿠분지	51 이시테지	73 숫사카지
8 구마타니지	30 젠라쿠지	52 다이산지	74 고야마지
9 호린지	31 치쿠린지	53 엔묘지	75 젠츠지
10 가리하타지	32 젠지부지	54 엔메이지	76 곤조지
11 후지이테라	33 쇼산지	55 난코보	77 도류지
12 쇼산지	34 다네마지	56 난코보	78 고소지
13 다이니치지	35 기요타키지	57 에이후쿠지	79 텐노지
14 조라쿠지	36 쇼류지	58 센유지	80 고쿠분지
15 고쿠분지	37 이와모토지	59 고쿠분지	81 시로미네지
16 간논지	38 콩고후쿠지	60 요코미네지	82 네고로지
17 이도지	39 엔코지	61 고온지	83 이치노미야지
18 온잔지	40 간지자이지	62 호주지	84 야시마지
19 다즈에지	41 류코지	63 기치모지	85 야쿠리
20 가쿠린지	42 부츠모쿠지	64 마에가미지	86 시도지
21 다이류지	43 누이세키지	65 산카쿠지	87 나가오지
22 보도지	44 다이호지	66 운젠지	88 오오쿠보지

액세스 루트는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각 교통기관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